

생산적 백수를 지향하며.(6월 7일~ 6월 30일까지 인턴 생활 보고서)

- 단체 설명

나는 만유인력이라는 책방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 만유인력은 만리동에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끌 인과 사람 인의 중의적인 의미)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만유인력은 2017년 후원을 받아 만리동 고개 꼭대기에 문을 열었다. 아티스트 겸 영화감독 겸 행위예술가인 한반님의 작업실 역할도 한다. 파견 예술인 사업을 진행하여 주기적으로 예술인들이 책방으로 찾아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림 1 외부 전경

- 활동 내용

나는 2시부터 7~9시까지 근무했다. 사장님의 일정에 따라 퇴근 시간이 달랐다. 평균적으로 하는 일과는 재고 정리와 등록이다. 만유인력 아이패드에 있는 산책이라는 앱에 새로 들어온 책이나 등록이 안 된 책들 바코드를 찍어서 등록했다. 바코드가 없거나 인식이 안 되는 책들은 수기로 작성했다.

사장님이 외부활동을 제안하실 때는 외부로 나가서 활동했다. 다른 책방에 가서 우리 책방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을 구매했다. 또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집회에 가서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구루브 구루마라는 리어카를 끌고 서울역으로 나가 책과 음반을 판매한 적도 있었다. 외부활동은 많지 않았지만, 인상 깊었다.

사장님의 제안으로 제천간디학교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장님 지인 중에 대안학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 5명 정도가 만유인력으로 찾아와 7시부터 9시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 아이가 있는 엄마들이었고 아이들 진학 고민으로 가득했다. 대안학교에 대해 관심도 많고 재밌으신 분들이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어도 재미있었다. 작은 입학설명회 느낌이었다.

2일에 한 번씩 파견 예술인들이 오면 같이 활동했다. 현판을 달고, 페인트칠하고, 예술가들이 준비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파견 예술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들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단순히 장래에 대한 조언부터 개인 관심사에 관한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예술가들은 매일 오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있는 날에는 그냥 앉아서 책만 읽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 활동 총평

사실 일이라곤 거의 하지 않았다. 예술가들도 프로젝트 기획 기간이라 실행은 거의 하지 않았다. 재고 등록도 얼마 걸리지 않는 일이고, 책방이 좁아서 청소도 5분 이상 안 걸렸다. 손님도 일주일에 1~2명 왔다. 4주 동안 일하면서 외부 활동도 많지 않았다. 사장님도 4살짜리 막내를 돌보느라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았다. 그렇게 비는 시간마다 책을 읽고, 쓰이지 않는 글을 쓰려 했다. 일이 없는데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생산적인 백수가 되려 부단히 노력했다. 처음 보는 예술가들과 친해지려 노력했고, 잘 읽히지 않아도 책을 계속 잡고 있었다.

4주 중 3주를 앉아서 잡생각을 했다. 이 무빙은 언제 끝날까, 내가 이 무빙에서 얻는 것이 있을까, 나는 앞으로 뭘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파견 예술인분들에게 물어봤다. 어차피 무빙 끝나면 안보겠다는 생각으로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다 털어냈다. 그래서 더 진솔한 대화가 가능했고, 예술가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다. 예술가분들과 친해진 뒤로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들었다. 혼자 있는 날은 혼자 있는 대로 즐겼다. 사장님네 막내랑 놀아주고, 벽장에 있는 음반들을 다 한 번씩 들어보고, 책방에 있는 옛날 잡지들도 읽었다. 업무에서는 얻을 게 없었으나 만유인력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처음 보는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고, 디폴트값이 호감이었다.

예술가분들이 오면 예술가분들의 인생사를 물어봤다. 어쩌다 예술을 하게 되었고 무슨 굴곡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재미있었다. 영화 같은 사연들이 가득했다. 그 이야기들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분에 넘치는 애정을 받고,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만유인력에서 고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 일지

이름	이한준	날짜 활동시간	6/7
장소	만유인력	도움주신 분들	한받님
활동내용	<p>첫 출근이었다. 2시에 출근했다. 공간, 음반, 책 등 만유인력 안에 있는 것을 소개받았다. 거기 있는 라디오나 음향 장비 쓰는 법도 배웠다. 첫 출근이라 저녁을 사주셨다. 저녁 먹고 좀 있다 8시 좀 넘어서 퇴근했다.</p>		
특이사항	x		
소감	<p>첫 날이라 좀 얼떨떨했다.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누고 그냥 노는 느낌이었다. 진짜 사람이 없었다. 좁은 공간에 사장님이랑 둘이 있어서 어색했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파견 예술인이 오셔서 대화 나누고 활동 도움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X		

이름	이한준	날짜 활동시간	6/8
장소	만유인력	도움주신 분들	한반님, 박상덕님
활동내용	<p>어제랑 똑같이 2시 출근. 설치 미술 하시는 파견 예술인분이 오셔서 대화를 나눴다. 만유인력 앞 테라스가 녹슬어서 녹을 갈아내고 페인트칠을 했다. 3번에 걸쳐서 했다. 마르는 시간이 길어 중간 중간 쉬었다. 다 칠하고 박상덕님이 가셔서 배웅해드리고 책을 읽다가 퇴근했다.</p>		
특이사항	x		
소감	<p>드디어 첫 일을 했다. 일이라고 하기 뭐했지만 그래도 했다. 페인트 마르는 걸 기다리는 동안 너무 뽀뽀했다. 어색해서 그랬던 것 같다. 하지만 2번째 마르는 시간에는 좀 더 친해져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번에 칠하고 다음번에 또 칠해야 한다고 하셨다. 사장님보다 유쾌하시고 말이 많으셔서 재미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손님이 없었다. 손님이 많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이틀 동안 나랑 사장님, 박상덕님 이외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내일은 파견 예술인도 안 오는데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 2일 차인데 벌써 지루하다. 사장님도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걱정하셨다. 걱정이 많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진짜 모르겠음. 그냥 책 읽을 것 같음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X		

이름	이한준	날짜 활동시간	6/9
장소	만유인력	도움주신 분들	한반님
활동내용	<p>어제랑 똑같이 2시 출근. 오늘은 재고 등록하는 법을 배웠다. 재고등록을 하다가 사장님과 경희선 공유지 활동을 같이하셨던 분들이 놀러 왔다. 같이 이야기를 나눈 뒤 나는 책 읽거나 재고등록을 하루종일 했다.</p>		
특이사항	x		
소감	<p>첫 손님인줄 알고 기대했으나 역시 사장님 친구들이었다. 그래도 재고등록은 일 다운 일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진짜 모르겠음. 그냥 책 읽을 것 같음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X		

이름	이한준	날짜 활동시간	6/10
장소	만유인력	도움주신 분들	한반님
활동내용	<p>한반님이 만든 영화를 봤다. 청소를 하고 재고등록을 했다.</p>		
특이사항	x		
소감	<p>영화가 참 특이했다. 기괴하기도 하고, 숨겨진 의미를 찾는 것도 재미있었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p>진짜 모르겠음. 그냥 책 읽을 것 같음</p>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X		

이름	이한준	날짜 활동시간	6/13
장소	만유인력	도움주신 분들	한반님, 희석†
활동내용	<p>어제랑 똑같이 2시 출근. 파견 예술인이 없는 날이었다. 새로운 노래를 듣고 희석†가 와서 얘기를 나누었다. 한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만유인력 홍보 영상을 만들기로 했다. 혼자 저녁먹고 퇴근했다.</p>		
특이사항	x		
소감	<p>첫 손님 이 왔다. 무언가를 사가지지는 않았지만, 구경하고 간 것만 해도 장족의 발전이다.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아서인지 책이 잘 읽혔다. 희석쌤이 와서 좋았다.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친구들 이야기도 듣고.</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진짜 모르겠음. 그냥 책 읽을 것 같음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X		

이름	이한준	날짜 활동시간	6/14
장소	만유인력	도움주신 분들	한반님
활동내용	2시 출근. 파견 예술인이 없는 날이었다. 책을 읽었다. 새로 들어온 책 재고 등록도 했다.		
특이사항	x		
소감	그냥 평범한 하루였다. 손님도 없고, 파견 예술인도 없고 시간이 느리게 가서 지루했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진짜 모르겠음. 그냥 책 읽을 것 같음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X		

이름	이한준	날짜 활동시간	6/15
장소	만유인력	도움주신 분들	한반님, 상도님, 성직님
활동내용	상도님과 성직님이 또 오셨다. 같이 서로 아픈 곳을 공유하며 재활운동 같은 걸 했다.		
특이사항	x		
소감	혼자 있을 때는 심심했는데 파견 예술인이 와서 좋았다. 창도님이 연극 하시는 분이래 연극 관련된 이야기도 나눴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진짜 모르겠음. 그냥 책 읽을 것 같음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X		

이름	이한준	날짜 활동시간	6/11
장소	만유인력	도움주신 분들	한반님, 율리님
활동내용	이번에도 새로운 예술인 율리님을 만났다. 파견 예술 오시는 분 중에 유일한 여성 분이셨다. 동네 슈퍼 사장님이랑 이야기도 나눴다. 별 다른 활동은 하지 않았다.		
특이사항	x		
소감	율리님을 처음 만났는데 둘만 있어서 조금 어색했다. 공간은 슬슬 적응되어도 오는 사람들은 적응이 힘들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진짜 모르겠음. 그냥 책 읽을 것 같음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X		

이름	이한준	날짜 활동시간	6/17
장소	만유인력	도움주신 분들	한반님
활동내용	<p>오늘은 파견 예술인들 전체 회의 날이라 모든 파견 예술인이 만유인력에 모여 회의를 했다. 앞에 테라스 청소도 하고 프로젝트 현판과 게시판 용 칠판도 달았다.</p>		
특이사항	x		
소감	<p>파견 예술인들이 전부 온 것은 처음이었다. 모두 모여 이야기 하니 재미있기도 했고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진짜 모르겠음. 그냥 책 읽을 것 같음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X		

이름	이한준	날짜 활동시간	6/20
장소	만유인력	도움주신 분들	한반님
활동내용	4시까지 만유인력에서 재고등록 하다가 사장님과 함께 헌책방에 갔다. 만유인력에 새로 들어올 책들을 고르고 남은 시간 동안 책을 읽었다.		
특이사항	x		
소감	신촌에 있는 책방을 갔다. 굉장히 책이 많아서 읽는 재미가 있었다. 책방 투어가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갈 수 있어 좋았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진짜 모르겠음. 그냥 책 읽을 것 같음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X		

이름	이한준	날짜 활동시간	6/21
장소	만유인력	도움주신 분들	한반님,
활동내용	새로운 재고 등록법을 배웠다. 기존에 꽂혀있는 책들을 재고 등록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		
특이사항	x		
소감	일 다운 일을 한 것 같다. 좀 오래 걸렸지만 부듯했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진짜 모르겠음. 그냥 책 읽을 것 같음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X		

이름	이한준	날짜 활동시간	6/22
장소	만유인력	도움주신 분들	한반님
활동내용	7시까지 가만히 있다가 7시부터 제천간디학교 Q&A를 진행했다. 9시가 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특이사항	x		
소감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대화가 재미있었다. 가감 없는 질문과 가감 없는 대답. 수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안학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진짜 모르겠음. 그냥 책 읽을 것 같음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X		

이름	이한준	날짜 활동시간	6/23
장소	만유인력	도움주신 분들	한반님
활동내용	<p>오늘은 한반님이 수업이 있어 책방에 나 혼자 있었다. 혼자 있다가 파견 예술인 성직, 베리, 상덕님이 와서 다 같이 보드게임을 했다.</p>		
특이사항	x		
소감	<p>베리님이 보드게임 매니아라 그런지 신기한 보드게임을 들고 오셨다. 학교에도 그런 보드게임이 있으면 좋겠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p>진짜 모르겠음. 그냥 책 읽을 것 같음</p>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X		

이름	이한준	날짜 활동시간	6/24
장소	만유인력	도움주신 분들	한반님
활동내용	책 읽고 재고 정리했다. 만유인력 공간에서 동네 아이들 코딩 수업이 있어서 일찍 퇴근했다.		
특이사항	x		
소감	그냥 책 읽었다. 의미 있는 하루는 아니었다. 코딩 수업 구경을 할까 고민했으나 내가 있는 게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 자리를 비웠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진짜 모르겠음. 그냥 책 읽을 것 같음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X		

이름	이한준	날짜 활동시간	6/27
장소	만유인력	도움주신 분들	한반님
활동내용	<p>오늘은 지난번에 한 번 보였던 파견 예술인 베리 님이 와서 타로를 봐주셨다. 베리님 프로젝트 이야기도 듣고 끝나고 다 같이 만유도라는 성직님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p>		
특이사항	x		
소감	<p>타로가 정말 재미있었다. 내 고민이랑 정확히 일치해서 신기했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타로에 관해 물어봤다. 나중에 학교에서 해봐야지 싶었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진짜 모르겠음. 그냥 책 읽을 것 같음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X		

이름	이한준	날짜 활동시간	6/28
장소	만유인력	도움주신 분들	한반님
활동내용	<p>파견 예술인 베리님이 왔다. 이야기를 나눴다. 전에 달아났던 칠판 보수도 했다. 사장님 딸이 치과에 가야해서 일찍 퇴근했다.</p>		
특이사항	x		
소감	<p>확실히 파견 예술인이 오는 날이 재미있다. 베리님이 어떻게 예술계에 발을 들였는지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 얘기 듣는 건 늘 재미있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진짜 모르겠음. 그냥 책 읽을 것 같음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X		

이름	이한준	날짜 활동시간	6/29
장소	만유인력	도움주신 분들	한반님
활동내용	<p>김민재 감독님이 왔다. 상덕님과 베리님도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인이 만유인력에 놀러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p>		
특이사항	x		
소감	<p>민재님은 전에 한번 보았지만,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다. 이번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어서 너무 재미있었다. 환경 이야기부터 예술에 어떻게 발을 들이게 되었는지까지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같다. 재미있고 보람찬 하루였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전장연 투쟁 시위 참석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X		

이름	이한준	날짜 활동시간	6/30
장소	만유인력	도움주신 분들	한반님
활동내용	<p>책방으로 출근하지 않고 용산역으로 갔다. 전장연 집회에서 사장님과 함께 수업했던 분들이 공연한다고 해서 구경했다. 공연이 6시쯤 끝나 일찍 퇴근했다.</p>		
특이사항	x		
소감	<p>비도 오는데 참 많은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용산역 광장에 모였다. 어눌한 말투였지만 힘은 누구보다 강력했다.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남자애들이 내 앞에 와서 구경하는데 한 남자애가 “문재인 같은 놈들, 전장연 나가 뒤져라” 하며 외치더라. 그 앞에서 조용히 하라고 밖에 말을 못 한 게 후회된다. 턱이라도 반대로 돌려줄걸. 오늘 하루 못 걷게 만들어 얼마나 불편하게 사시는지 체험이라도 하게 해줄걸. 비온다고 징징거리고, 일베 하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고, 장애인 앞에서 장애인 욕을 하며, 자기보다 덩치 큰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하니깐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 세상에 아직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학교에만 있어서 까먹었나 보다.</p> <p>지하철로 돌아오는 내내 후회로 남았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마지막 날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X		

이름	이한준	날짜 활동시간	7/1
장소	만유인력	도움주신 분들	한발님
활동내용	<p>책방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사장님 지인인 찬민님과 파견 예술인 상덕님이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찬민님과 상덕님이 가고 구루브 구루마라는 리어카에 책과 음반을 담고 움직이는 책방을 진행했다.</p>		
특이사항	x		
소감	<p>찬민님과 상덕님, 그리고 사장님과 나.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장님네 막내인 나무가 자꾸 칭얼거려서 놀아줬다. 나무랑 놀아주느라 대화에 끼지 못해 조금 아쉬웠다. 마지막 날이라 사장님의 구루브구루마를 끌고 용산역으로 나가서 책을 팔았다. 조금 부끄러웠다.</p>		
다음 (내일) 활동계획	x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X		